

바른미래 변혁, '새로운보수당' 출범

새보수당, 당명 국민공모...청년·중도 주체
하태경 "이기기 위한 새 보수" 2+3비전 발표
유승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신당 만들자"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변혁)이 12일 신당의 명칭을 '새로운보수당'으로 정했다. 약칭은 '새보수당'이다. 새보수당은 청년과 중도를 2대 주체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권성주 변혁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변혁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정당명은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격론을 통해 난 결론은 '변혁'을 살려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보수당', 약칭은 '새보수당'으로 하기로 했다"며 "새보수는 이기기 보수가기 때문이다. 울드보수는 질 수 밖에 없다. 이기기 위해 새보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은 2대 주체와 3대 원칙을 담은 '2+3 비전'을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2대 주체는 청년과 중도. 청년이 이끌어가는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다. 3대 원칙은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울드보수로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예산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반청년, 밀실예산이 됐다. 국회가 암흑이 됐다"며 "이런 시대를 바꾸고 총선에서 150석 이상(연을수) 있는 새로운 야당, 새로운 보수,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시대를 새로운보수당이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번 창당은 화려하고 크게 시작하는 창당은 아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보수신당을 만들어가자"며 "격론을 겪으면서 당명을 정한 것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새로운보수당' 당명을 공개하고 있다.

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자"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당명에 '보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보수라는 가치가 일부 정당, 일부 정치인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이었다. 발기인, 창준위 소속 위원 등 회의를 통해 당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혁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라는 것은 지향하는 가치다.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좌우, 중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기존에 협소하고 편협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던 개념에 대해 지평을 넓혀 중도의 소구도 대변하겠다는 의미로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은 중도보수당이 아니다. 중도의 의미를 포함해 '새로운'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변혁 소속 의원들 마음은 다 함께 하고 있다. 비례대표인 경우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문제도 있다. 탈당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광주·남구형 ‘에너지 뉴딜’ 이끌 것” 이정희 전 한전 상임감사, 광주 동남갑 출마 선언

이정희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이 12일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감사는 이날 광주시의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개혁·국회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광주·남구형 '에너지 뉴딜'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광주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권재창출에 실패한다면 광주와 호남은 또 다시 차별받고 소외되고 낙후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대통령이 검증하고 인정하고 임명한 사람"이라며 "대통령 사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남구의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모델로 에너지 신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남구형 '에너지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한국전력의 연 예산 72조원의 효과가 광주와 남구의 경제활성화로 나타나도록 남구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남구경제와 일자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에너지밸리 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컨텐츠산업',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6차 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현재 조성중인 에너지밸리 산단에 현재 한전의 인재개발원보다 더 큰 규모의 교육·연수·컨퍼런스가 가능한 종합시설 건립 추진과 광주남구와 혁신도시간 광역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이 이깁니다. 광주가 옳습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북구를 출마 선언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북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실정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박수로 바뀌는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해 호남의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시민들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며 "호남 정치의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준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도, 일본의 경제보복도, 한반도 평화도 안중에 없이 오직 정권 탈환에 눈이 먼 수도권 세력들에게 광주가 옳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그래서 국민이 이긴다는 진리와 광주가 옳다는 해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경선시스템을 통해 능력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좋은 후보를 뽑아 당당하게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께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학 졸업 후 광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광주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39세에 전국 최연소 의회 의장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주선 의원 '좋은 정치인상' 수상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9 올해의 인물' 시상식을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공헌해 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인 등을 선정해 수상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는 "박주선 의원은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해 좋은 정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만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정치인상'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12개 분야 25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해마다 현직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지원 “靑, 정세균 검증하지만 이낙연 총리 ‘유임’ 유력” 전망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2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의장)이 급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종로에 출마해 당선되면 다음에 꿈을 가지신 분"이라며 "이낙연 총리의 유임설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와대가 정 의원의) 검증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사하는 것 같고, 정세균 의원은 처음에는 고사하더니 '김진표 의원의 집을 내가 찼다' 하는 것을 보면

총리직을 수락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대권 후보로서 일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 떠나는 것이 좋다"며 "타이밍은 예산국회 후, 즉 12월 말쯤이 될 것이다. 이때 개각 요인이 생긴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총리 유임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까지 통과시키면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다독겨야 하며, 거기에서 불을 붙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